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빙점』 과 『속빙점』 을 통해 본
‘원죄의 문제’와 ‘용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riginal Sin' and 'Forgiveness' in
『Hyo-ten』 and 『Hyo-ten2』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본학 전공

채 현 숙

『빙점』과 『속빙점』을 통해 본
‘원죄문제’와 ‘용서’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조 영 석

이 논문을 일본학석사(전공명)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본학 전공

채 현 숙

蔡賢淑의 日本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청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의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영석 인

2007 년 12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目 次

I. 序論.....	1
II. 本論.....	5
1.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과 기독교와의 관계.....	5
1-1 작가의 문학적인 배경이 된 홋카이도와 그녀의 삶...5	
1-2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세계.....	14
2. 『빙점』에 나타난 원죄를 통해서 본 에고이즘의 세계	21
2-1 『빙점』에 나타난 원죄의 의미.....	23
2-2 일본인 독자가 받아들인 『빙점』과 원죄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32
3. 『빙점』과 『속빙점』에 나타난 ‘신의 용서’에 대한 고찰	37
III. 結論.....	44
參考文獻.....	48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Sin' and 'Forgiveness' in 『Hyo-ten』 and 『Hyo-ten 2』

Chai, Hyun-sook

Advisor: Ptof. Jo, Young-seok

Major in japanology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Hyo-ten』 which is a debut novel by Miura won an award in the writing contest organized by the Asahi Newspaper in 1964. It evoked a great echo enough to create a sort of **Hyo-ten** boom at that time.

As known in several novels published after the debut novel, Miura as a faithful christian writer intended to make us think about what humans are and how we have to live .

She says in her novels that we have original sin and to be relived from it, we need forgiveness from the absolute being, the God .

As usual in most of her novels, she deals with basic misfortunes and sins shown through personal relations of several types. She intended to describe our original sin in the relations between couple of Keijo and Natue, between the couple and Yoko, and between Dooru and Yoko who are characters of 『Hyo-ten』 . She emphasizes the relations through using a theme of original sin in her novel, and so 『Hyo-ten』 wonderfully describes the meaning of sin every human being have.

Through 『Hyo-ten』 and 『Hyo-ten2』 which are Miura's debut and representative novel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original sin and the forgiveness by the God, who has absolute power to forgive the sin.

1. 序 論

『빙점(氷點) (이하 『빙점』 이라 함)』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 1922년~1999년)는 일본 근현대작가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중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우라 아야코(이하 미우라로 함)의 초기 데뷔작인 『빙점』은 1964년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1천만엔 현상공모소설에 당선되어 빙점붐으로까지 불려일으켰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 대단한 반향을 불러모았던 작품이다. 이러한 빙점붐에 대해 평론가인 오자키 호츠키(尾崎秀樹)는 「시청각시대의 현상소설(視聽覺時代の懸賞小説)」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사가 천만엔현상소설을 구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 당시 동경본사의 학예부장이고 직접 이 기획을 구상한 扇谷正造는 소설이 시작되기전부터 독자간의 인기몰이, 계속독자 확보, 아사히신문사에 대한 이미지확대, 혹은 저널리즘 본래의 사회적 책무중의 하나인 신인발굴 등을 들고 있으나 본래 아사히신문사는 현상소설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ところで、朝日新聞社が一千万円懸賞小説を思い立ったのは、どういう目的からだろうか。当時東京本社 of 学芸部長として直接この企画にタッチした扇谷正造は、小説がはじまる前からの読者のあいだの前景氣、継続読者の確保、朝日に対する企業イメージの拡大、あるいはジャーナリズム本来の社会的責務の一つである新人の発掘などをあげていたが、もともと朝日新聞社は懸賞小説²⁾については、ふるくからの歴史を持っている。

이와 같이 평론가 오자키 호츠키도 밝혔듯이 아사히신문사의 현상소설

1) 奥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

2) 아사히신문사의 현상공모소설의 역사는 『大阪朝日新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지37)년에 大江素天 『長恨』을 시작으로 沖野岩三郎의 『宿命』 吉屋信子の 『地の果まで』 横山美智子の 『緑の地平線』 大田洋子の 『桜の国』 등이 있다.

은 메이지(明治)기에 3회, 다이쇼(大正)기에 6회, 쇼와(昭和)기에 3회 등 일본 국내신문사에도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프로, 아마추어작가를 불문하고 총731편이 응모를 했던 현상소설공모에 마흔두살의 주부인 늦깎이 작가 미우라의 『빙점』이 당선된 것이었다.

이러한 『빙점』의 인기에 대해 평론가 에토준(江藤淳)은 『빙점』을 한마디로 현대일본 문단에 대한 도전³⁾이라고 하였다. 아시히신문사의 현상공모소설에 당선된 뒤에 활발히 작가활동을 한 사람이 거의 드문 상황에서 『빙점』이 당선된 뒤에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는 미우라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평론가 사코준이치로(佐古純一郎)도 미우라의 작품활동에 대해 미우라의 존재는 현대의 기적이다⁴⁾라고까지 평하였다. 이후 본론에서도 살펴 보겠지만 미우라와 같은 자전적 환경에서 비롯한 문학활동의 출발이 이후 그녀가 생을 마치기까지 지속한 사람은 거의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우라는 데뷔작 『빙점』과 이후의 여러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독실한 기독교 작가중의 한 사람이다.

미우라가 『빙점』과 『속빙점』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원죄⁵⁾이고, 그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존재, 즉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원죄의 의미는 무엇일까? 원죄라는 것은 성경사상에 뿌리를 둔 인간관이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몸에 새겨진 존재이고, 그 구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⁶⁾

기독교에서는 신을 배반하거나 자기중심(自己中心)적인 것이 최대의 죄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자신을 절대화시켜 신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고통

3) 佐古純一郎, 『三浦綾子のこころ,』 朝文社, 1989, p277

4) 위와 같음

5) 원죄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를 타고난다는 교리. 속죄론 국립국어연구원 1999. 두산동아

6) 三浦綾子文学館 編著, 『氷点を旅する』, 北海道新聞社, 2004, p112

을 느끼지 않는 오만한 자기정당화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우라는 「『빙점』을 마치고(「氷点」を書き終えて)」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제목에서부터 훌륭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테마 이유도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역시 인간의 행복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평화스럽게 보이는 가정안에서도 순식간에 흩뜨려져 가는 모습,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하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법률적인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도 계신다. 하물며 우리들 세상은 늘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들 스스로 경험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법률이나 도덕을로는 따질 수 없는 좀더 근본적인 죄라고 여겨진다.7)

〈ある方は題からして、そうメデタイ終りは予想もできないはずとっておられた。テーマのゆえもあってやむを得ないとは言えるが、これはやはり人間の中に幸せをさえぎるものが、あまりにも多すぎるからではなかろうか。平和に立ち返ったかに見える家の中も、たちまち乱されて行く姿、そこに人間を根本的に不幸ならしめている何かが感じられはしないだろうか。その根本的な原因をわたしは、追求し、訴えたかったのだ。〉

法律的にはもちろん、道徳的にもたいへんりっぱな方もおられる。しかもなお、わたしたちの世の中は、常に誤解し合い、傷つけあって生き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の姿であり、わたしたちも自ら経験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ると思う。ここに法律や道徳律では律しきれない、もっと根本的な罪が、考えられている。〉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우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영두에 두고 기독교의 「원죄」라는 테마에 바탕을 두고 『빙점』을 쓴 것이다. 미우라의 작품이 대개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7) 岡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 p185

근본적인 불행과 근본적인 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빙점』의 작중인물인 츠지구치 게이조(辻口啓造)와 그의 아내인 나츠에(夏枝)의 부부관계, 게이조부부와 요코(陽子)의 관계, 아들인 도오루(徹)와 요코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그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미우라가 『빙점』에서 원죄라는 테마를 삽입하여 강조한 부분이며, 이러하듯이 『빙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탁월하게 꼬집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의 애증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식을 꼬집어내어 위대한 힘의 존재를 예감하게 한다는 점에 이 작품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미우라의 문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독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본 뒤, 그녀의 작품세계 연구와 『빙점』과 『속빙점』⁸⁾을 중심으로 원죄를 통해서 본 에고이즘의 세계와 원죄의 의미, 인간의 원죄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용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8) 이하 작품 인용은 朝日文庫의 『氷点』과 角川文庫의 『続氷点』을 인용하여 페이지만 인용함(논자 번역)

II. 本 論

1.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과 기독교와의 관계

1-1 작가의 문학적 배경이 된 홋카이도와 그녀의 삶

미우라 아야코는 1922(昭和14)년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가와(旭川)에서 태어나서 삶을 마치기까지 아사히가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아사히가와는 그녀가 작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학적 배경이 되었고 아사히가와를 비롯한 홋카이도의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자연 경관은 이후 여러 작품의 배경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9)

미우라는 일본 군국주의가 최고조에 다다른 시기인 17세(1939년¹⁰⁾)때에 홋카이도 우타시나이(歌志内)시의¹¹⁾ 神威(카모이)소학교 교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전적소설인 『길은 여기에(道ありき)』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교단에서 쓰러져도 좋다’라는 굳은 신념과 아이들을 평등하게 가르치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7년간의 짧은 교사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천황의 나라인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국주의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아이들을 가르쳤던 미우라는 일본천황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무릎을 꿇자 바로 이듬해인 1946년에 교사생활을 그만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교사생활을 했던 1940년대의 일본교육의 주목적은 ‘인간이 되기 전에 국민이 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의 교육은 천황 폐하의 국민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교육에 열성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녀의 말대로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9) 塩狩峠、サロベツ原野、旭川市、美瑛川、小樽運河、十勝岳、春光台 등 그녀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홋카이도의 자연이 자주 인용되었다

10) 미우라가 교사가 된 해인 1939년 전후의 일본사정을 살펴보면, 1937년에 일화사변이, 1938년에 「국민총동원법」이 공포되었고, 1939년 7월에는 「국민징용령」이 공포되는 등 전시의 성격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다

11) 1939년의 우타시나이市는 탄광지대로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석탄생산의 교두보로서 군사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1946(쇼와21)년3월, 즉 패전한 이듬해인 나는 만 7년동안의 교사생활을 그만두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단에 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혹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¹²⁾

昭和二十一年三月、すなわち敗戦の翌年、わたしはついに満七年の教員生活に別れを告げた。自分自身の教えることに確信を持たずに、教壇に立つことはできなかったからである。そしてまた、あるいは間違っただけを教え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思いは、絶えずわたしを苦しめたからであった。

즉 국가에 대한 굴신과 더불어 아이들에 대한 자책감이 결국에는 그녀의 자존심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책감은 전적으로 국가를 신뢰해 왔던 그녀에게 있어서 일본이 패전한 후에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자기자신에 대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평론가 타카노 토시미(高野斗志美)가 「좌절과 전략 <石ころの青春>」¹³⁾에서도 밝혔듯이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부정되어 버렸고, 더욱이 그 관계를 굳게 믿어버린 그녀의 자기기만이 고발된 것이라고 평하였다.

‘만일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가르치는 일이 틀린다는 말이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일을 가르치기보다는 깨끗이 물러나서 누구에게 시집이나 가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앞에 적은 니시나카 이치로(西中一朗)였다.

‘누구한테 시집이나 가버리자.’
하는 안이한 태도로 그와 약혼하려던 내게 어떤 자가 경고라도 하는 것일까? 나는 마침 사주를 받는 날에 빈혈로 쓰러진 것이다.
바로 그 뒤에 나는 폐결핵으로 쓰러져 버린 것이다.¹⁴⁾

12) 三浦綾子, 『道ありき』, 新潮文庫, 1969, p20

13) 奥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 『評伝三浦綾子—ある魂の軌跡』, 2001에서 재인용, p90

14) 『道ありき』, p19~20

(もし、正しかったとすれば、これから教えることが問題になる)
どちらかわからぬことを教えるより、いさぎよく退職して、誰かのお嫁さんにでもなってしまうのか。そんなことを考えていた矢先に、わたしの前に現れたのが、先に記した西中一朗だった。

という安易な態度で彼と婚約しようとしたわたしに、何者かが警告しようとしたのもあろうか。結納の日に、わたしは脳貧血を起こして倒れたのである。そして、間もなく肺結核でわたしはほんとうに倒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

‘누구한테 시집이나 가버리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미우라의 감정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아가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혼을 도피처로서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우라는 두 남자와 이중약혼을 하게 되고, 교사생활을 그만 둔 뒤 한 달여쯤 지난 뒤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폐침윤(肺浸潤)¹⁵⁾이라는 병으로 요양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요양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산다는 것의 기쁨을 잃어버린 미우라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 또한 미수에 그치고 만다. 죽는 일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비참함에 그 후 미우라의 생활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이러한 생활가운데 폐결핵으로 인한 척추카리에스라는 병이 발병해 13년간을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된다. 이 시기의 투병생활에 대해 미우라는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罪を罪と感じないことがつみだ)’로 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밑줄 논자)

이런 심정 속에서 나는 니시나카 이치로와, 또 T와도 약혼을 한 것이다. 니시나카 이치로에게서 사주가 오던 날 내가 빈혈을 일으켰다는 것은 앞에서 적었다. 빈혈이 가라앉고 나서 이미 사주가 와 있었던 것도 나

15) 그 당시의 의사는 폐결핵을 늑막이라고도 하고 폐침윤이라고도 했다. 그편이 어느정도 병상을 가볍게 느껴주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요양소에 3개월정도 입원한 환자는 그후 몇 년동안 더 입원을 해야 하고, 6개월이라고 판명된 사람은 거의 죽어나갔다. (『道ありき』 논자 번역)

중에 생각해보니 무언가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누군가한테서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16)

そして、そんな中でわたしは西中一朗やTと婚約したのである。二人のうちの西中一朗から結納の入る日に、わたしが脳貧血を起こしたことは前にも書いた。貧血がおさまって、気がついた時には、既に結納が入っていたのも、後で考えると、何か象徴的な気がする。とにかく何ものかに罰せられているような感じがつきまとして離れなかった。

이러하듯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요양소생활을 하고 있던 미우라는 폐결핵으로 요양중이었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마에카와 타다시(前川正) 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마에카와(이하 타다시는 생략)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미우라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자 하나, 삶에 냉소적이었던 미우라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또한 그녀는 폐결핵이 발병하자 니시나카 이치로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자살이 미수에 그치게 되자 그녀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져만 갔다. 그러한 그녀를 늘 곁에서 지켜보던 마에카와는 포기하지 않고 미우라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기독교 신앙으로 자신의 삶에 자포자기의 상태였던 미우라의 마음을 서서히 열리게 한다. 『道ありき』에 나타난 미우라에 대한 마에카와의 진심어린 충고의 한 장면을 인용한다.

그는 곁에 있던 돌을 주워들더니 자기 발을 광광 치며 연거푸 찢는 것이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자, 그는 내 손을 꼭 쥐어잡고 말했다.

『아야코, 나는 지금까지 아야코가 기운을 내서 살아나가게 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몰라요. 아야코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나는 당신을 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한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멍하니 할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17)

16) 『道ありき』, p21

彼は傍にあった小石を拾い上げると、突然自分の足をゴツンゴツンとつづけざまに打った。さすがに驚いたわたしは、それをとめようとする
と、彼はわたしのその手をしっかりと握りしめて言った。

『綾ちゃん、ぼくは今まで、綾ちゃんが元気で生きつづけてくれるようにと、どんなに激しく祈って来たかわかりませんよ。綾ちゃんが生きるためになら、自分の命もいらないと思ったほどでした。けれども信仰のうすいぼくには、あなたを救う力のないことをおもしろされたのです。だから、不甲斐ない自分を罰するために、こうして自分を打ち付けてやるのです。』

わたしは言葉もなく、呆然と彼を見つめた。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이며 남에게 폐만 끼친다고 자학하는 미우라에게 이와 같은 마에카와의 진심어린 충고는 자기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며 얼어붙어 있었던 그녀의 마음을 깨우고도 남았으리라 본다.

(戦時中に、お前はまちがって信じたはずではないか。それなのに再びまた何かを信じようとしているのか。) 結局は、人間は死んでいく虚しい存在なのに、またしても何かを信じようとするのは、愚かだと思った。

丘の上で、吾とわが身を打ち付けた前川正の、わたしへの愛だけは、信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た。もし信ず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れは、私という人間の、ほんとうの終りのような気がしたのである。¹⁷⁾

‘전시중에 너는 그릇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런데 또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 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허무한 존재인데, 무엇을 또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짐짓 어리석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언덕 위에서 자기 손으로 자신을 때린 마에카와 타다시의 나에게 대한 사랑만큼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것마저 믿을 수 없다면 나는 인간은 완전히 끝장이라고 느껴졌다.

17) 『道ありき』, p80

18) 『道ありき』, p80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삶에 허무적이고 절망감에 가득 차 있던 미우라는 마에카와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여 담배와 술도 끊고 수많은 이성들간의 덧없는 교제도 그만두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드디어 미우라도 병상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미우라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에카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마에카와는 미우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

마에카와가 죽은 뒤에도 그가 죽은 시간에 맞춰 눈을 뜨게 되고 항상 그의 죽음만을 안타까워 하며 지내던 미우라는 김스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기독교 발간지중의 하나인 「いちじく」의 회원이 되어 독자들끼리 서로 서신을 주고 받게 된다. 이 「いちじく」의 서신왕래가 계기가 되어 미우라 미츠요(三浦光世)라는 인물의 병문안을 받게 된다.

그로부터 1년동안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마에카와의 상(喪)을 지냈다. 매일 밤, 그가 죽은 새벽 1시14분까지 잠들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이렇게 슬픔에 빠진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질 않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신을 무시하고 마에카와만 생각하는 자신을 느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소시절의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던 것을 계기로 병상에 있던 나를 병문안 와 주었던 남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미우라 미츠요였다.¹⁹⁾

それから一年間というもの私はだれでも会わず、前川さんの喪に服した。毎晩、彼の亡くなった午前一時十四までは眠れない習慣もついた。だが一年立つと、こうして悲しみにしずんだ生活からはなにも生まれないことをさとした。いつのまにか、神のほうを見ないで、前川さんのほうばかり向いている自分に気がついたのだ。

…そんなある日、療友との文通がきっかけで、私を病床に訪ねてくれた

19) 『道ありき』, p290

男性があった。それが三浦光世だった。

미우라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에카와가 죽은 뒤에 미우라 미츠요(이하 미츠요라 함)를 만나면서 한층 더 기독교 신앙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용한 성품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미우라에 대한 인상을 적어 놓은 부분을 인용해한다.

…첫 인사를 나누었을 때의 그 조용한 말투가 정말로 그(마에카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표정 하나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닮았어, 닮아)라고 그를 쳐다보았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차츰 체력을 회복하여 침대에서 일어날 정도까지 되었다. 내가 그 말을 해 주었더니, 그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²⁰⁾

…初対面の挨拶をかわしたいうちに、その静かな話しぶりが、実によくかれ(前川)に似ているとわたしは思った。わたしはその表情のひとつに驚きをもちながら、(似ている、似ている)と、彼を見つめていた。人に会うようになってから次第に体力を回復し、その時はベッドに起き上がる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のことを言うと、彼はわがことのように喜んでくれた。

생전의 마에카와와 너무나도 흡사한 미츠요를 보고는 죽은 마에카와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미우라와 그녀의 주위 사람들은 아주 놀라워 했다. 이 미츠요라는 청년은 미우라보다 2살이나 연하이지만 매우 성실하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깊은 이로 거의 매일같이 미우라를 병문안하여 죽은 마에카와가 그러했듯이 미츠요도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미우라가 오랜 병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다. 이와 같은 미츠요의 헌신적인 애정과 보살핌으로 인해 13년동안 침대에 누워 병상생활을 해 왔던 미우라는 드디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미츠요가 미우라와 인연을 맺은 지 5년만에 결혼서약을 하게 된 것이다.

20) 『道ありき』, p290

미우라 미츠요는 세 번이나 찾아왔다. 활짝 열어놓은 마루바닥에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다.

돌아갈 즈음,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느님, 저의 목숨을 호리다²¹⁾씨에게 바쳐도 좋습니다, 그녀가 꼭 낮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의 기도에 깊이 감동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남을 위해 생명을 바쳐도 좋다는 기도따윈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²²⁾

三浦光世は三度訪ねて来た。開け放った縁側に、夏の陽が眩しく照り返していた。

帰る時、彼はわたしのために祈ってくれた。

「神様、わたしの命を堀田さんに上げててもよろしいですから、どうかかなおしてあげてください。」

わたしはこの祈りに、激しく感動した。この時まで、わたしのためにこのような祈りをしてくれた人は一人もいなかった。そしてまた、わたし自身も、人のために命を上げてよいのだという祈りなど、未だ曾てしたことがなかった。

위의 인용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우라에 대한 미츠요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의 작품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조연자²³⁾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에 몸이 불편해진 미우라를 대신하여 구술필기(口述筆記)²⁴⁾를 맡아 하는 등 미우라문학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녀의 문학적 배경이 된 「군국주의 시절 7년동안의 교사생활과 패전 후의 허무함과 삶의 의욕상실, 이중약혼과 자살미수사건, 폐결핵과 척추카리에스로 인한 발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던 13년동안의 투병생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던 중에 초등학교 시절의 동창생 마에가와를 만나 그리스도신앙을 받게 되고 세례를

21) 三浦綾子の 결혼전의 성(堀田)

22) 『道ありき,』 p298

23) 실제 『빙점』의 제목도 미츠요가 제안한 것임.

24) 活水大学の 上出恵子教授는 미우라부부의 이 공동작업을 「文学のコラボレーション」라고 평가하였다

받은 것」 등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녀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인간애(人間愛)를 실천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우라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삶의 원점이고 글쓰기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 미우라 아야코의 기독교적 작품 세계

1964년 『빙점』이 발표된 이후, 미우라는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인간의 죄의 의미, 인간에 대한 사랑과 화해 즉 용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그녀는 죽기 전까지 소설을 비롯하여 자서전, 에세이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처음으로 소설을 써 본 내 소설이 입선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됐든 소설을 쓴다는 것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기분. 설사 입선이 안 되더라도 심사를 하는 분만이라도 읽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그 심사를 하신 분들만이라도 전도가 된 것이다.²⁵⁾

「初めて小説を書く素人の自分の小説が、入選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とてもかんがえられなかった。しかし、とにかく小説をかくことを通して伝道をしたという気持。そして、入選はできなくても、審査をしてくれる先生だけは読んでくれるだろうと思った。そうすると、その審査をして下さる先生たちだけでも伝道ができる」

위의 인용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미우라는 자신이 전도를 위해 소설을 쓴다고 밝힌 것처럼 미우라문학은 「祈りの文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우라아야코는 「나는 왜 『빙점』을 썼는가?(わたしはなぜ『氷点』を書いたか)」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빙점』속의 츠지구치(辻口)家の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은 생활을 계속 한다. 나츠에와 게이조의 모습은 내 자신 속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상”이다. 그리고 요코는 자기 자신은 절대 올바르다고 믿어 온 결과 자살이라는 큰 죄를 범하고

25) 佐古純一郎, 『三浦綾子のこころ』, 朝文社, 1989, p37

만다. 요코도 신의 존재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p.35

ここに登場する辻口家の人々は、すべて神のほうを見ない生活をつづけている。夏江や啓造の姿は、私の中にもだれの中でも潜んでいる〈神をおそれない人間像〉である。

そして、陽子は、自分だけは絶対に正しいと信じることを支えに生きた結果、自殺という大罪を犯すことになった。陽子も神のほうを向いていなかったのである。これらの人間たちを理解することで私は人間のもつ一方の善意、神を信ずる精神を知ってもらいたかったのである。

『빙점』 이후에 발표된, 미우라는 『시오카리고개(塩狩峠)』 『집짓기 장난감상자(積木の箱)』 『어머니(母)』 『총구(銃口)』 등 그녀의 기독교적 사랑과 기도로서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약한 모습과 인간관계 등의 애증을 통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먼저 『시오카리고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시오카리고개』의 주인공인 나가노 노부오(永野信夫)²⁶⁾는 기관차와 객차가 분리되어 객차가 역주하자,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기의 몸으로 기차를 멈추게 한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한 것이다.

미우라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이 소설에서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가 결여된 것이 많다. 사랑이 그렇고, 정조가 그렇고. 그러나 희생이란 단어는 현대인의 사전에 이미 없어져버린 것처럼 생각된다.²⁷⁾

〈この小説でわたしは犠牲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現代にはいろいろと欠けたものが多い。愛、然り。節、然り。犠牲にいたっては、現代人の辞書にはもうこの言葉は失われているかのように、私には思われる。〉

미우라가 강조한 것처럼 『시오카리고개』의 주인공인 나가노 노부오를

26) 실제 인물인 나가노 마사오(長野正雄)를 모델로 한 작품임

27) 三浦綾子, 『遺された言葉』, 講談社, 2000, p165

통해 점점 잊혀져 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에 대해 독자들을 일깨우려 한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집짓기 장난감상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소설은 『빙점』 『양치는 언덕』 『시오카리고개』에 이은 미우라아야코의 네 번째 장편 소설로 1967년에 발간되었다. 빙점에 이어 다시 신문연재소설²⁸⁾의 의뢰가 들어오자, 자신이 경험했던 7년간의 교사생활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구상하게 된다.

『積木の箱』이란 제목은 어쩌면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알 수 없을 것도 같은 제목이지만, 처음엔 「옹벽」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 나아갈 예정이었다. …(중략)… 「옹벽」이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만든 제방이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한번 일이 생기면 보기에 무참할 정도로 부서져 버린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훌륭한 가정으로 보이지만 부서지기 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積木の箱」という題は、何となくわかるような、わからぬような題だが、最初は「擁壁」という題で筆を進めるつもりだった。…(中略)… 「擁壁」は、崖崩れを防ぐためのコンクリートで造った土手を指す。しかしかたがた頑丈に造ってみても、一旦事があると、その擁壁は見るも無残に崩れてしまう。それはちょうど、世には立派な家庭に思われながら、時にそのもろさを露呈することに似ていると言える。²⁹⁾

『積木の箱』의 두 주인공인 교사 스기우라유지(杉浦悠二)와 그의 학생인 사사바야시이치로(佐々林一朗)와의 갈등과, 사사바야시의 가정을 배경으로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보이지만,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어서 일본이 패전하기 전까지 7년간의 실제 교사생활이 바탕이 되어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 반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로서의 양심이

28) 『積木の箱』은 1967년4월부터 1968년5월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되었다

29) 奥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 p195

『銃口』를 쓰게 한다. 문학평론가인 쿠로코카즈오(黒古一夫)는 평론가들과의 대담중에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나 사상을 추구하는 작품」 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³⁰⁾

특히 요근래 20년동안 일본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실제로 중요한 인간의 마음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부분에 어느샌가 미우라문학이 그득히 깔려 있었다.

特にここ二十年ぐらい、日本が経済的に豊かになってきたときに、ほんとうに大切な人間の心だとか、生き方とか、そういうものがどこかに吹っ飛んでしまっている。そんな空白部分に、いつのまにか三浦綾子の文学がどんとすわっている。

1992년 미우라가 『母』를 발간하게 된 것도 남편 미츠요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자가 고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³¹⁾의 어머니인 세키(セキ)의 인간적인 강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양심적인 작가로서의 감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인공인 세키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회상을 하는 장면을 인용한다.

제가 생각할 때 좌익이든 공산당이든 기독교이든 마음속 깊은 곳은 다 상냥하지요. 누구든지 옆사람과 사이좋게 살고 싶거든요. 맛난 경단을 만들면 바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어려운 걸랑 잘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간인지라 나쁜 일도 생각할 수 있구요. 어떤 때는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누구든지 인간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랍니다.³²⁾

〈わだしが思うに、右翼にしろ、共産党にしろ、キリスト教にしろ、心

30) 久保田暁一, 『三浦綾子の世界』, p159

31) 小林多喜二(1903~1933) 당시 고등경찰의 고문으로 학살당함.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가슴아픈 희생자중의 한사람이다. 多喜二는 『1928년3월15일』 『부재지주』 『전형기의 사람들』 『蟹工船』 등 관료와 경찰권력을 배경으로 한 자본가의 사회적인 부정과 싸우는 프롤레타리아문학작품을 발표. 久保田暁一 『母』 해설에서 인용

32) 三浦綾子, 『母』, 角川書店, 1992, p218

の根っここのところは優しいんだよね。誰だって、隣の人とは仲よくつき合っていきたいんだよね。うまいぼた餅つくったら、つい近所に配りたくなるもんね。むずかしいことはわからんども、それが人間だとわたしは思う。そりゃあ人間だから、悪いことも考えるべき。ある時は人ば怒鳴りたくもなるべき。でも本当は、誰とでも中よくしたいのが人間だよ。ね。〉

세키의 회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상냥하다는 미우라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러 세키는 그녀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은 본래 누구나 상냥하다라는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부조리하게 아들을 잃은 세키의 갈등이 신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통해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우라의 작품세계는 인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두루 통찰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미우라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신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인간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계이다. 살아 있는 인간은 실수를 하고 자기분위가 되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악마적인 행위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한 인간 존재의 실상을 거짓없이 바라보며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상냥함과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미우라는 여러 작품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³³⁾

三浦綾子の求める世界は、神を信ずる者も信じない者も、互いに人間として許し合い、愛し合う世界である。生身の人間は、過ちを犯し、自己本意になって人を傷つけることが多い。時と場合によっては、人間は悪魔的な行為も為す。その人間存在の実相をごまかしなく見つめ、神に許しを乞いつつ、人間としての優しさと愛を求めて行くべきことを作者は訴えているのである。

33) 久保田暁一, 『三浦綾子の世界』, p159

위의 인용문은 쿠보타교이치(久保田暁一)가 『총구』와 『어머니』, 두 작품세계를 평한 것이다. 쿠보타가 평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우라는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애(人間愛)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평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독교문학작가의 대표로 평가받는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와 미우라의 문학적 차이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우라의 문학을 살펴보면, 「나는 왜 쓰는가(私はなぜ書く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서는 세계최고의 문학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사실 그대로 인간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 추태·죄악을 꼬집어 내는 데 있다. 그제 꼬집어낼 뿐만아니라 성서는 그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이러한 태도가 문학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섬김의 문학, 호교문학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말로 하나의 신조를 소설속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적인 자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문학적으로 어쩔든간에 이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³⁴⁾

「聖書は世界最大の文学とよくいわれるが、正にそのとおり、実によく人間を描いている。特に、その醜態・罪惡を抉り出してやまない。しかし、ただに抉り出すだけではなく、聖書はその救いの路をあきらかに証明しているのである。…(中略)…こうした態度が、文学的に問題視されることは知っている。主人持ちの文学、護教文学といった批判である。たしかに、ひとつの信条を小説の中に主張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文学的には具合のわるいことなのであろう。だがわたしは、文学的にどうであれ、この姿勢を変え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だ」

이와 같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우라의 작품은 기독교의 전도자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우라의 경우와는 반대로 엔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4) 久保田暁一, 『三浦綾子の世界』, p171에서 『孤独のとなり』 재인용

나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해 즉, 문학으로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작가는 교회를 다녀도 그 기독교 신앙을 위해 쓰지 않고 포교를 위해 작가가 된 것도 아니다. 그의 작품에 교회나 기독교적인 환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주장이나 인간을 그리기 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적문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기독교작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미우라는 극명한 문학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私には小説やエッセイを通して、つまり文学によってキリスト教を信じるように人に進めたいという気は全然ありません」³⁵⁾ 또한 「作家は教会に通っていても、そのキリスト教のために書くわけでもなければ、布教のために作家になったわけでもない。彼の作品に教会やキリスト教的環境が出てきたとしても、それは彼の主張や人間を書きやすいから使うにすぎない。だから、厳密に言えばキリスト教文学なるものは存在しないし、キリスト教作家なるものは存在しないものだ」

미우라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이 범한 여러 가지의 죄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치밀한 관찰력과 작품을 창조하는 정확한 글쓰기는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신의 존재와 사랑을 몸소 증명하려고 했던 미우라의 문학이나 엔도의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은 같은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문학」이란 여하튼간에 신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35) 久保田暁一, 『三浦綾子の世界』, p172에서 『私にとって神とは』 재인용

2. 『빙점』에 나타난 원죄를 통해서 본 에고이즘의 세계

이미 앞서서도 밝혔듯이 원죄라는 것은 성경사상에 뿌리를 둔 인간관이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몸매에 새겨진 존재이고, 원죄의 구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갚아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우라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동안 기독교 세례를 받도록 인도해 주었던 니시무라(西村)선생에게 자신의 가슴 속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죄’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니시무라선생은 ‘일본인인 우리들은 죄라고 하면 국법을 어긴 경우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 원죄라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신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p.31)라고 미우라에게 설명한다. <日本人である私たちは、罪というと国法にふれる罪のことを考えてしまう。原罪というものは、犯す罪ではなく、神を無視して自己中心の生活をするのである> 그렇다면 미우라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식에 대해 썼다고 하였으나 정작 작자 자신이 느낀 죄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나는 병이 들고 나서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나는 내 자신의 죄를 몰랐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의 모습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상대방이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들은 화를 내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자기중심이야말로 죄의 근원이라고 들었다. 원죄인 것이다. 원죄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믿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잘못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わたしは病気になって、それからいろいろないい人に会って、それからクリスチャンになるのですが、そのところは本当に話したいところなのですが、私は、自分の罪がわからなかった。

それは、自分の罪の姿を本当に知らな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中略)
相手が遂に、本当に飛び降り自殺をしたくなるぐらい、わずかなことで
もわたしたちは怒るもんですね。³⁶⁾

それが自己中心の人間の姿だと思いますが、こうした自己中心というこ
とが、罪の元だと聞かされています。原罪です。これを許してくださる
のは、イエス・キリストしか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て、わたしたちは生き
てるわけです。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いことは、何か、私たちが
いいことをしたら、許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悪
かった」と心から思ったら許してくださるのが、イエス・キリストです。

이는 미우라가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마에카와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되자 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과, 또
한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죄의식과 신의 용서에 대하여 고백한 부분
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는 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거스르
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죄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은 늘
죄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의 의미를 [빙점]의 주인공 요코를 비롯하여 그밖의
작중인물인 게이조, 나츠에, 도오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36) 三浦綾子, 『なくてはならぬもの』, 光文社, 1999, p109

2-1 『빙점』에 나타난 원죄의 의미

『빙점』의 일관된 테마는 원죄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확실히 인간의 여러 군상들은 표현되어 있고 다른 소설과는 별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미우라가 ‘『빙점』의 테마는 원죄이다’라고 밝혔듯이 주인공들의 내면의 갈등과 복잡한 인간관계의 모순 등을 통한 원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빙점』의 어디에서 원죄와 관련되어 묘사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먼저 『빙점』의 주요 줄거리와 주인공들의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고뇌에 대해 내용을 축약해 보고자 한다.

『빙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훗카이도 아사히가와와 병원장인 츠치구치 게이조(辻口啓造)와 나츠에(夏江)부부는 장녀 루리코(ルリコ)를 갑자기 나타난 악한에게 살해당한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각, 나츠에는 안과의인 무라이 야스오(村井靖夫)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 이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게이조는 나츠에가 바람을 피운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짓는다. 비뚤어진 복수의 수단으로 의대시절의 친구인 다카키(高木)에게 부탁해서 살인범의 갓난아기를 얻어 요코(陽子)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그 아이를 나츠에에게 키우게 한다.

이러한 게이조의 행위는 아내에 대한 복수와 함께 「너의 적을 사랑하라」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시험하는 잔혹한 행위였다. 한편 게이조의 속마음도 모른채 요코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나츠에는 현모양처의 겉모습과는 달리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드디어 남편의 일기에 끼워져 있던 편지를 읽고 실상을 알게 된 나츠에는 귀여워했던 만큼의 몇백배의 미움으로 요코를 대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다. 순수하고 무구한 요코도 출생의 비밀을 알고는 괴로워한 나머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애증의 실타래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식을 끄집어내어 거룩하신 힘의 존재를 예감케한다는 점에 이 작품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우라가 『빙점』 이후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래 일관된 테마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이다> 라는 것이다. 죄의 현실성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다는 시점에서 그녀가 문제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에고이즘의 문제>이며, 그녀는 그것을 <자기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먼저 인간의 자기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우라는 「죄란 무엇인가(罪とは何か)」³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잘 지적한 부분이다.

…(전략)…자기중심이 아닌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한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것」과 「자기중심」은 다르다. 자기중심적으로 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가 되고, 자신이 헌법이고 내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는 올바른 것이 되고 상황이 나쁠 때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된다.

…(前略)…自己中心でない人は一人もいない。一人の人間がこの世に生きて行くためには、自分が自分を大事にすることはまさしく必要である。だが、この「自分を大事にすること」と、「自己中心」とはちがう。この自己中心を押し進めて行くと、「人はどうなってもかまわ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自分が憲法になり、自分にとって都合のよいことが正しいことになり、都合の悪いことが正しくないことになる。

즉, 원죄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 자기중심적인 죄를 뜻한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이란 나는 나쁘지 않다, 남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좋지 않다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나쁘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반대로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자신을 평가롭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면을 미우라는 실로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게이조는 지금 자신 마음 속에 어두운 동굴이 입을 썩 벌리고 있는

37) 三浦綾子, 『光あるうちに』, 新潮文庫, 1971, p37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제일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도대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던가. 이 무서운 생각은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겨졌다. (마음 속 따위, 바닥이 있는 동안은 괜찮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구멍 속에서 자신도 상상 할 수 없었던 더욱 더 무서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멍은 자신에게도 나츠에에게도 누구의 가슴속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p113)

啓造はいま、自分の心の底に暗い洞窟がはっきりと口をあけているような恐ろしさを感じた。最愛であるべき妻に向かって、一体自分は何ということを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この恐ろしい思いは自分の心の底に口をあけてまっくらな洞窟からわいてくるように思われた。(心の底などといって、底のあるうちはまだいいものだ。底しれないこの穴の中から自分でも想像もしなかった。もっともっと恐ろしいささやきが聞こえてくるのではなかろうか)そしてこのそこしれぬ暗い穴は、自分にも、夏枝にも誰の胸にもあることを思わない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

위의 인용 부분은 게이조가 나츠에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요코를 키우게 한 것이 발각된 뒤,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이다. 마음 속 깊은 곳, 시커먼 동굴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인간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원죄를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빙점』 후반부에서 게이조가 자기중심의 죄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이 잘 묘사된 장면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게이조는 자기를 죄 많은 인간이라고 절실히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지니 이상한 일이었다.

‘만일 남이 나처럼 아내의 부정을 미워한 나머지 요코를 아내에게 키우게 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나는 그 사나이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룻밤 놀아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자기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부정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남이 해서 나쁜 일은 자기가 해도 나쁜 일임에 틀림없는데.’ (p258)

啓造はつくづく自分を罪がぶかいと、思った。そうは思ってもまた、どのだれよりもやはり自分がかawaiiのが不思議だった。

(もし他人が、おれのように妻の不貞を憎んで、陽子を妻に育てさせたときいたなら、おれはその男を罵倒するだろう。第一、おれ自身ももし一夜の浮気をしたとしても、おれはけっして自分を怒りはしない。それなのに妻の浮気は絶対ゆるせないのだ。一体これはどういうことなのだろう。人がやって悪いことは、自分がやっても悪いはずだ。)

고등학생이 된 요코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까봐 전전긍긍해 하는 게이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남이 하면 손가락질 받을 일을 본인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비밀을 감추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게이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작가는 게이조를 통해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빙점』의 또다른 한 장면에서 게이조가 자기중심적인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

남이 했을 때 대답이 나쁘던가 인사가 나쁘더라도 화가 난 주제에 왜 자신이 했을 때는 용서할 수 있을까? 게이조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데 놀라웠다(자기중심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아닐까?)

人のことなら、返事の悪いことでも、あいさつの悪いことでも腹が立つくせに、なぜ自分のことなら許せるのだろうか。と啓造は人間というもののおどろいた(自己中心とは何だろう。これが罪のもとではないか)

「자기중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죄의 근원이 아닐까?」이 물음이야말로 미우라 아야코가 늘 가슴에 품었던 인간의 근본문제를 들추어낸 점이었다. ‘때때로 제가 강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라며 그녀가 다음과 같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면을 예로 들어 표현한 부분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꽃병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할까? 늘 조심하지 않으니까, 허둥대니까 등등, 자기자신은 지금까지 접시나 꽃병을 한 번도 깨뜨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깨지 않을 것 같은 얼굴로 꾸짖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 내가 깨뜨렸을 때는 어떠한가. 잠시 허만 차고는 결코 아이를 꾸짖을 때처럼 자기자신을 꾸짖지는 않는다.

もし、子供さんが、花瓶をこわしたら、どうするか。いつも不注意だからよ、そそかしいからよ。などと言って、自分は今まで皿も花瓶も一切割ったこともなく、今後も一生割ることはないような顔つきで、叱るのではないか。しかし、もし、自分が割った時はどうするか。ちょっと舌を出したほどで、自分の過失をゆるし、決して、子供を叱る時のようには自分を叱らない。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인간은 남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면, 그 실수나 잘못을 감싸주기는커녕 자칫 꾸짖기 십상이지 않은가. 하지만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는 어떠한가. 스스로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감싸거나 변명을 하기 쉬운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이렇게 약한 존재인 인간의 한 단면을 미우라는 흔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매우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었다.

또한 미우라가 작품 속에 제기하고 있는 원죄를 『빙점』의 후반부에 「유서」라는 마지막 장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자신 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을 발견한 저는 살아가야 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았던 저입니다. 요코(陽子) 라는 이름과 같이, 이 세상의 빛과 같이 밝게 살아가려고 한 저는 어머니가 보시는 바와 같이 화가 날 정도로 뻔뻔스러웠지요.

하지만, 지금 요코는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온 힘을 다해 살아 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 마음은 얼어 버렸습니다. 요코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딸이

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앞이라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참고 살아가는 때야말로 진실로 산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p319)

…(前略)…しかし、自分の中の罪の可能性を見出した私は、生きる望みを失いました。どんな時でもいじけることのなかった私。陽子という名のように、この世の光の如く明るく生きようとした私は、おかあさんからごらんになると、腹の立つほどふてぶてしい人間だったことでしょう。

けれども、いま陽子は思います。一途に精いっぱい生きてきた陽子の心にも、氷点があったのだということを。私の心は凍えてしまいました。陽子の氷点は「お前は罪人の子だ」というところにあったのです。私はもう、人の前に顔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どんな小さな子供の前にも。この罪ある自分であるという事実能耐えて生きて行く時にこそ、ほんとうの行き方がわかるのだという氣もいたします。

私にはそれができませんでした。残念に思いますけれども、私はもう生きる力がなくなりました。凍えてしまったのです。… (後略) …

요코가 자살하기 직전에 게이조와 나츠에 앞으로 쓴 유서의 내용이다. 요코는 자신을 길러 준 나츠에로부터 「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친어머니의 부정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요코는 충격을 받고 죽음을 결심하게 되고 만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자신했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요코도 살인자의 딸이라는 원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유서의 내용중에는 먼 선조로부터 죄를 이어받아온 인간성,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인간의 원죄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우라는 이러한 인간의 약한 존재를 이해하는 것 즉, 인간이 가진 선의(善意), 신을 믿는 마음을 『빙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원죄라는 윤리적으로 난해한 테마를 알기쉽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리해서 제기한 미우라 아야코의 <직접적인 문체와 표현>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빙점』의 작품세계는 <예를 들면 와카오 아야코³⁸⁾나 아라타마 미치요³⁹⁾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감각속에서 연기한다면 어떤 위화감도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직접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존재의 근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직접적인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후 미우라작품의 중요한 성격중의 하나이다/ 원래 직접적인 문체나 표현이란 우리나라에선 자주 감각적인 독선이나 즉물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미우라의 직접성은 그와는 반대로 인간존재의 현실성에 근거를 둔 소박한 경건함에서 유래한 것이다> 40)

『三浦綾子—愛と祈りの文芸』の著者・水谷昭夫氏は、『氷点』について、原罪という倫理的で難解なテーマを分かりやすい今日的な姿に収斂させて提起した三浦綾子氏の〈直截な文体や表現〉を高く評価して次のようにのべた。その作品の世界は〈例えば若尾文子や新珠美千代が、私たちの日常的な生活感覚の中に演じて、あるほどは、何の違和感もなくうけいられるような、直截な形をもっていた。そしてこのような、人間存在の根源にかかわる問題に対して、つねにその直截な平明を保っているのは、以降三浦綾子氏の作品の重要な性格の一つである。/ もともと直截な文体や表現というものは、わが国においては、しばしば感覚的な独善や、即物的な割り切りの中でたもたれがちであるが、三浦綾子氏の直截さというものは、そのような傾向とはまさしく逆の、人間存在の現実性に根ざした、素朴な謙虚さというものに由来しているものである。〉

이와 같이 미즈타니 가즈오(水谷昭夫)가 평가한 것처럼 ‘직접적인 명료함’이란, 언제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38) 若尾文子 TV드라마 『빙점』에서 요코를 연기함

39) 新珠三千代 TV드라마 『빙점』에서 나츠에를 연기함

40) 三浦綾子文学館 編著, 『氷点を旅する』, p 113

미우라만의 독특한 문학세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우라의 이러한 문학적 특성이야말로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고 인기를 유지한 비결인 것이다. 비교적 『빙점』에 대해 깊이있게 해석한 야마모토 카호루(山本かほる)는 주인공인 요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나츠에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요코는 상처를 안고 살면서 또 하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온 요코가 인간(원죄를 짊어진 존재)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도 된 점이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순수한 요코의 영혼에 흑점을 덧붙이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밟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의 충동적인 재촉에 의해 요코는 자살을 꾀하고 자신의 더러운 피를 묻어버리려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이후 요코의 마음속에는 생친의 존재가 무겁게 자리잡아 간다. 자신의 출생이 기쁨속에서 맞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자신의 존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었던 요코가 생모에 대한 증오라는 형태를 띄어 간다. 맨발의 여인⁴¹⁾이 된 요코가 여기에 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외침, 용서함과 용서받음과의 갈등속에 살아가는 요코의 모습에 자기존재의 근원적인 의의를 되물으려는 작자의 시점이 있다.⁴²⁾

〈夏枝によって出生の秘密を暴かれた陽子は傷つきつつも一つの人生を見いだしてゆく。それはこれまで健気であった陽子が人—原罪を負った存在—として生まれ変わる契機にもなった。何人をも憎まずに生きてきた純白な陽子の魂に一つの黒点を加えながらも、それはより人間的な生を踏み出すための契機となった。〉

…衝動의 우なが시의ままに陽子は自殺を計り、自らの血の汚れを葬り去ろうとしながら遂に果たし得なかった。以後陽子の中に生みの親の存在は重く淀んでくる。自分の出生がよろこびの中で迎えられなかったという事実が彼女自身の存在を常に不安にさらしている。そしてそれは人を

41) 山本かほる, 〈三浦綾子 『氷点』의 陽子〉, 国文学解釈と鑑賞, 1979. 9. p 8 6

42) 위와 같음

恨むことをしなかった陽子の中に初めて生じた生みの母への憎悪という形をとってくる。素足の女になった陽子がここにいる。母を許せないと叫び、許すことと許されることの葛藤の中で生きてゆく陽子の姿に、自己存在の根源的意義を問いなおそうとする作者の視点がある。

이와 같은 〈자기존재의 근원적인 의의를 되물으려는 작자의 시점〉은 『빙점』뿐만 아니라 모든 미우라 문학작품의 특색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시점의 이면에는 하느님이 있고, 그 하느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즉 하느님과 인간의 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로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징되는 원죄의 이미지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일본인 독자가 받아들인 『빙점』과 원죄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1964년 소설 『빙점』의 당선은 일본 문단에 있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 《아사히신문사》는 창립 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현대 문학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1천만엔이라는,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대단한 액수의 상금을 걸고 기성 작가를 포함한 아마추어 작가의 소설을 모집했다.

그런데 7백31편의 응모 작품중에서 작품 활동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못한 중년부인의 작품이 당선된 것이다.

미우라는 24세 때부터 37세까지 13년동안 여성의 한창 때를 병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보내야 했다. 그런 그녀가 ‘독자의 생애에서 괴로울 때에 상기했으면 하는’⁴³⁾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미우라가 처음 『빙점』을 쓸 때에는 초등학교 5학년정도의 국어실력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속어를 피하고 형용사나 부사로 수식하지 않는 소박하고 명료한 문장을 쓰도록 노력했다고 한다.⁴⁴⁾ 이것은 성서와 같은 문체라면 쉽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주지한 바와 같이, 미우라의 『빙점』은 원죄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아사히신문의 연재가 1964년 12월 9일에 시작하여 1965년 11월 14일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례적인 초스피드 출판이었다. 무명의 주부작가가 일으킨 빙점신드롬을 출판계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또한 TV드라마는 신문연재가 끝나고 불과 두달여 만에 NET⁴⁵⁾가 제작하게 되고 전국 6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등 TV드라마에서도 경이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빙점의 인기에 더불어 일본의 일반독자들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에서 전하는 원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1966년 홋카이도신문사에서 일반인독자들을 상대로 앙케이트조사를 실

43) 『氷点』水谷昭夫의 해설에서 재인용

44) 三浦綾子, 『遺された言葉』, 講談社, 2000, p118

45) 아사히TV의 전신(前身)

시켰는데, 빙점을 알고 있는 도쿄도내에 사는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혼16명=20대-2명, 30대-9명, 40대-4명, 50대-1명)

미혼14명=10대-5명, 20대-9명)

① 『빙점』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TV만	1	1
신문과 TV	9	
신문만	6	TV 2
신문과 단행본	1	신문 1
단행본과 TV	1	단행본 4
단행본만	1	
신문, 단행본, TV	1	

② 제일 감명을 받은 장면

요코의 졸업식	8
나츠에가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다	7
요코의 밝은 성격과 솔직함	2
요코가 자살을 꾀한다	1
도오루가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다	1
기타하라가 요코의 비밀을 알다	1
요코의 우유배달	1
연락선 사고	1

③ 『빙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약간		반대	
		찬성	아님	아님	반대
『빙점』은 의붓자식학대 이야기이다	0	1	8	4	7
『빙점』은 사랑을 호소한 작품이다	11	11	3	4	1
나는 나츠에처럼 되고 싶지 않다	14	5	9	1	1
요코는 좀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	9	11	6	1	3
나는 이 작품의 결말에서 안심했다	13	3	7	3	4
요코가 죽는 편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4	1	7	3	15

『빙점』은 더 읽혀져야 한다	10	4	12	2	2
『빙점』 붐을 만든 것은 TV이다	9	8	5	2	6
『빙점』의 저자가 무명이라는 점에 호감이 간다	11	6	9	2	2
『빙점』을 많은 사람이 읽은 것은 훗카이도라는 무대 때문이다	1	4	8	5	12

(1966년)

표①에서 알 수 있듯이, 빙점을 TV로 접한 사람이 제일 많다. 다음으로 신문, 단행본 순이다. 이 앙케이트조사를 할 무렵에는 아직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30명중에서 17명이나 『빙점』을 「1천만엔 현상당선소설」로서 알고 있었고 4명만 몰랐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독자들에게 미우라라는 작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은 물론, 「훗카이도 아사히가와 출신」으로 「교원생활을 몇 년간 한 뒤에 척추카리에스에 걸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던 점」 「투병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입문」 「아사히가와 영림서(營林署)에 근무하는 사람의 아내」로, 「잡화점을 하고 있다」는 등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만큼 「주부가 이 정도의 소설을 썼다는 데 탄복」하였고 「천만엔이나 탈 정도의 소설이라면 과연 어떤 소설일까 흥미진진」했다고 한다.

작품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 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혼그룹과 미혼그룹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그룹에서는 자신의 가정생활·부부관계와 비교해 보고는 「나츠에와 같은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자신이 나츠에라도 역시 똑같이 했을 것이다」 「나츠에와 나 자신과는 다르다」라고 받아들였다. 한편 미혼그룹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동지를 튼 사랑과 미움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오해가 눈더미처럼 불어나 증오가 되었다」와 같이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인 증오와 오해에 강한 관심을 보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②는 가장 감명깊었던 장면을 묻자 두 장면인 「요코의 졸업식」과 「나츠에가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역시 TV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중학교 졸업식에서 요코가 “백지로 된 답사를 읽는 장면”의 방송이 나간 지 1주일 뒤였고, 마지막 클

라이막스인 요코의 자살장면은 아직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원작(단행본)에서 여섯 장면을 뽑아 가장 인상이 깊은 장면을 물어보니, 기혼이나 미혼이나 자살장면을 제일로 뽑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오루가 요코의 비밀을 알다」 「나츠에가 요코의 목을 조르다」 「나츠에가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알다」 「요코의 졸업식」 순이었다. 이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히 살아 왔던 요코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장면에 이르러 많은 독자들이 안타까움과 요코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킨 때문이라고 본다.

표③은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빙점』이 단순히 ‘의붓자식 학대’라고 생각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빙점』이 아사히신문 연재중에도 「ヨウコハ、シンデハナラナイ(요코는 죽으면 안 돼요)」라는 독자들의 투서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앙케이트 조사 대상자들도 「요코가 죽은 편이 작품성이 있다」라는 점에는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요코는 좀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자살같은 건 하지 말고)라는 점은 기혼여성의 찬성이 많았고 미혼여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상으로 “빙점 신드롬”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겠다.

- ① 아사히신문이 모집한 “천만엔”의 당선소설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대한 신뢰감
- ② 평범한 주부가 글을 썼다는 친밀감
- ③ 소비생활이 풍부해진 반면 정신생활에 공백이 생긴 그 곳을 『빙점』의 일상적이면서 異常적인 줄거리로 뒤바꿔서 채웠다는 기대감

이와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죄’는 비교적 많은 독자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들은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인 듯하다.

현상소설 수상작에 『빙점』을 추천한 심사위원중의 한 사람인 우스이 요시미(臼井吉見)씨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미미한 통속적인 형태로는 원죄가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⁴⁶⁾라고 지적했다.

46) 『「氷点」を旅する』,北海道新聞社, p144

작가 미우라 아야코도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 주셔서 기쁜긴 하지만, 지금은 이 작품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 솜씨가 부족해서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점인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こんなにたくさんの方に読んでいただいたのはうれしいんですけど、いまは失敗作だと思っています。わたしの筆の力が足りなくて、私がほんとうにいたかった、キリスト教の原罪ということが十分にわかってもらえなかったんでうから…」 p142

반면 기독교 신자이자 평론가인 사코 준이치로(佐古純一郎)씨는 「주간독서인」 「월간그리스도」라는 잡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빙점』의 출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불신과 고독속에 목말라하는 현대인이 진실한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츠치구치가에서 빛어지는 “에고이즘”의 비극·희극이 자신들의 부부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그 곳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면서까지 보편적인 것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점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같이 평론가들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였지만, 『빙점』은 신문소설의 특성상 템포가 빠른 전개, 감추어진 비밀이 풀려가는 긴박감,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인 요코에 대한 호감등이 일반독자들을 쉽게 끌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47)

『氷点』の出現は決して偶然の文学的事件ではない。その背後には、不信と孤独のなかで、飢え渴いている現大人が、真実の愛を求めている。辻口家にかもし出されている“エゴティズム”の悲劇・喜劇が、自分たちの夫婦生活の現実と無縁のものではなく、読者をそこに参加させるまで普遍的なものに高められているという。

47) 앞과 같음

3. 『빙점』과 『속빙점』에 나타난 ‘신의 용서’에 대한 분석

압도적인 『빙점』의 인기에 힘입어 미우라가 『속빙점』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속편은 1971년 5월, 『빙점』이 연재된 지 5년만에 아사히신문에 다시 연재되었다. 『속빙점』의 내용은 전편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려했던 요코가 생명을 되찾으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미우라는 처음 『빙점』의 스토리 구상을 할 당시에 요코의 유서 장면을 먼저 구상했다고 한다. 『빙점』은 작가 스스로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원죄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자기자신만은 지금껏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확신하는 요코는 결국자신이 살인자의 딸임을 알게 되자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自分の中の罪の可能性を見出した私」라고 유서에 쓴 요코가 「血の中を流れる罪を、ハッキリと〈ゆるす〉と言ってくれる権威あるもの」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 즉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지금 이 순간에 〈용서〉라는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서 말이지요. 저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라고 해 줄 수 있는 권위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p320

いまこう書いた瞬間 〈ゆるし〉という言葉にハットするような思いでした。私はいままで、こんなに人にゆるしてほしいと思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いま 〈ゆるし〉がほしいのです。おとうさまに、おかあさまに、世界のすべての人々に。私の血のなかに流れる罪を、ハッキリと〈ゆるす〉と言ってくれる権威あるものがほしいのです

인간의 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용서한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미우라가 『속빙점』에서 묻고 있음에 틀림없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미우라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한다는 것은 죄이고, 나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라는

것을 요코의 독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속빙점』에서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에 고민하던 게이조가 신앙에 대한 갈등과 함께 무구한 영혼의 소유자인 요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코는 「親切なつもりの自分に、意地悪の自分がひそんでいる(착하게 살아가려고 한 자신속에 심술궂은 자기가 있었음)」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결백함 속에 오만함을 발견하고는 「自分を正しいと思うことによって、いつしか人を見下げる冷たさが、心の中に育ってきた(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남을 알보는 냉정함이 자리잡고 있었다)」라고 자기분석을 하게 된다.

미우라는 「『속빙점』을 마치고(続氷点を書き終えて)」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코는 죄를 깊이 느끼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다. 『빙점』은 거기서 끝난다. 거의 죽음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요코는 당연히 죄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코가 참된 죄의 용서를 체득할 때까지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48)

陽子は罪にめざめて、絶望し自殺をはかった。氷点はそこで終わっている。と、すれば、命が助かった陽子は当然、罪について悩み、いかにして罪がゆるされるかを考えるはずである。だから、陽子に真の罪の許しを体得させるまで書かねばならない。そう思って私は書き出した。

앞서 본론에서 미우라가 밝혔듯이, 『빙점』에서 원죄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탓은 자신의 글솜씨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였지만, 『속빙점』은 독자의 마음을 또 한번 사로잡게 되는데 그녀의 이야기 구성력은 『빙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빙점』에서 초지구치가(家)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으로 비쳐지지만, 그 가정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면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마음

48) 『続氷点』에서 原田洋一の 解説 재인용

을 추측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 나츠에의 친구인 다츠코(辰子)의 말처럼 「この家族はもっといいことをいわなければためになる(이 가족 좀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가족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빙점』의 소극적인 인간관계가 『속빙점』에서는 적극적인 관계로 바뀐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요코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적극적인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体は癒えても、心の傷はそう簡単に癒えない(몸은 나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며 여동생인 요코를 걱정하는 도오루는 요코의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도오구의 친구이자 요코와 사귀고 있는 기타하라(北原) 역시 요코의 비밀을 누설한다. 미츠이 게이코(三井恵子)의 둘째 아들인 다츠야(達也)는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요코의 존재를 추궁하기 위해 요코를 집요하게 따라다닌다.

하지만, 이제 『속빙점』에서의 요코는 전과 같이 수동적일 수는 없다. 요코의 생모인 미츠이 게이코는 남편이 출정(出征)중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숙하고 있던 나카가와 미츠오라는 학생과의 불륜관계로 요코를 낳은 것이다. 요코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적의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미우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人を裁くことが、なぜ罪かを改めて知らされたような気がした(남을 정죄(定罪)하는 것이 어째서 죄인가를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죄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적고 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자는 하느님뿐이다. 인간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정죄를 맡기지 않는 것이다. 이 교만은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요코에 대해 써 나갔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요코만이 아니다. 등장인물들이 서로 곳곳에서 정죄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두려움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⁹⁾

裁くことは、自分が正しいという位置に座し、自分が正しいという確信

49) 앞과 같음

をもつことだ。裁きの座につくかには、神お一人だけである。人間が裁くということは、神をおしのけ、その神の座に座ることなのだ。神を信頼しないものは、神に裁きを任せておけないのだ。この傲岸さは日常の私たちの姿でもある。そんなことを思いながら、私は陽子を書いていった。また裁くのは陽子だけではない。登場人物同志がお互いに随所で裁き合っている。私は人間の恐ろしさを自分の中に見ないではいられなかった

세 청년의 성급함에 대해 요코의 친구인 준코(順子)⁵⁰⁾는 「包帯を巻いてやれないのなら、他人の傷にふれてはならない(붕대로 감아 줄 수 없으면 남의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의 말씀을 요코에게 상기시킨다. 또한 다츠코의 「自ら復讐するな。復讐するは我にあり、我これに報いん(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라는 말에 요코는 「真に裁き得るものだけが、真に許し得る(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만이 참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성서에 나오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

사코 준이치로는 『속빙점』에 나타난 미우라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속빙점』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하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인간은 살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 요코가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룩하신 존재가 필요하다」고 기도한 것처럼 「거룩하신 존재」는 틀림없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미우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증명하려고 한 작가인 것이다.⁵¹⁾

《続氷点》についてくわしく述べることはひかえたいと思うが、眞実に罪がゆるされることなくして、人間は生きることに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そうして、あの陽子が《罪をハッキリとゆるす權威あるものがほしい》と祈るように求めた《權威あるもの》はまさしく存在するのだとい

50) 준코는 루리코를 죽인 살인자 사이시의 친딸임

51) 佐古純一郎, 〈心を詩う作家 三浦綾子の世界〉主婦の友社, 1978, p168

うこと、それこそあの《十字架の愛》なのだということ、きわめてあらっぽくとりまとめてみるなら、三浦さんは全身全霊をかたむけてそのことをあかししようとしている作家なのである。

미우라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아바시리(網走)⁵²⁾의 대해(大海)에 떠오른 〈타는 유수(流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이렇게 생각하자 요코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렀다는 피를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감동이었다.

그 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타고 있었다. 약간 핑크빛을 띤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올랐다. 요코는 어느새 주먹을 꼭 쥐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쪽 불길이 차츰 꺼져 갔다. 그러나 왼쪽 불길은 잿빛 유빙 벌판속에서 여전히 타고르고 있었다.

요코는 조금전까지만 해도 쉽사리 믿을 수 없던 신의 존재가 갑자기 아무 저항도 없이 믿어졌다. 이 황막한 유빙 벌판이 핏빛으로 물들고, 들의 마른 풀을 사르는 불길처럼 타고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요코의 내부에도 갑자기 타고르는 유빙에 호응하는 듯한 변화가 일어났다.

요코는 이 무한한 천지의 실재를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다.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의 의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p366

(天からの血)

そう思った瞬間、陽子は、キリストが十字架に流されたという血潮を、今日の前に見せられているような、深い感動を覚えた。それは説明しがたい不思議な感動だった。

その血から、火がふき出るように燃える。ややピンクを帯びた炎となって、ゆらめき燃える。陽子はいつの間にか、手を固く握りしめながら見

52) 일본 홋카이도 동쪽에 위치, 오토츠크해에 면해 있고 시내에는 아바시리유빙관, 모요로 패총(貝塚)館 등이 있다.

つめていた。

右手の焔が次第にうすらいで行く。が、右手の火焰の氷原の中に、なお燃えつづけている。

先ほどまで容易に信じえなかった神の实在が、突如として、何の抵抗もなく信じられた。このされざれとした流光の原が、血のように染まり、野火のように燃えるのを見た時、陽子の内部にも、突如、燃える流光に呼応するような変化が起きたのだ。この無限の天地の实在を、偶然に帰することは、陽子には到底できなかった。人間を超えた大なる者の意志を感せ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人間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요코는 선명한 불꽃 빛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가 보상될 수 없다고 하던 준코의 말도 지금은 순순히 믿을 수 있었다. 이 비정한 자기를 용서하고 말없이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 어째서 그것이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는지 요코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p367

(何と人間は小さな存在であろう)

あざやかな焔の色を見つめながら、いまこそ人間の罪を真にゆるし得る神のあることを思った。神の子の聖なる生命でしか、罪はあがなえないものであると、順子から聞いていたことが、いまは信じられた。この非情な自分をゆるし、だまって受け入れてくれる方がいる。なぜ、そのことがいままで信じられなかったのか、陽子はふしぎだっ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빙점』의 클라이막스는 유수가 불길처럼 타오르는 듯한 장면이다. 그러나 요코가 보고 있는 장면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 속의 눈으로 바라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불타는 듯한 유수를 바라보면서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죄송해요’라는 소리가 나온다. 요코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애써 외면하려 하였지만, 불타고 있는 듯한 유빙에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

인가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요코의 생각을 빌어,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에는 미우라 작자 자신의 내면의 고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III. 結 論

데뷔작 『빙점』으로 일본문학에 혜성처럼 등단한 이후로 미우라는 36여편의 작품을 내놓아 그녀가 삶을 마치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미우라의 작품 연구에 앞서 우리는 그녀의 문학적 배경이 되었던 패전직후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허무함과 그에 따른 좌절감, 그 이후 바로 발병한 척추카리에스로 인한 13년동안의 투병생활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우라의 초기작 『빙점』의 테마였던 인간의 원죄를 중심으로, 그녀 스스로가 밝혔듯이 기독교 신앙을 전도하기 위한 작품들을 계속 써 온 것이다.

지금까지 28년동안 서른여섯편의 소설을 썼다. 그 서른여섯번째는 고바야시다키지의 어머니인 세키에 대해 쓴 『어머니』로, 이 작품도 『빙점』만큼은 아니지만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이 읽어 주었다. 어쨌든 서른여섯권 모두 제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써 온 것이다. 미우라(남편)이 「꼭 한번 써 보면 좋겠다」고 부탁한 『어머니』도, 그러한 생각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이제 남은 생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글을 쓸 수 있는 한 나의 이 자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⁵³⁾

今日まで二十八年の間に、小説は三十六冊を書いた。その三十六冊目は、小林多喜二の母セキを書いた「母」で、これも「氷点」ほどではないとしても、ベストセラーとして多くの人に読まれている。とにかく三十六冊それぞれ、キリストの愛を伝えたい思いをこめて書いてきた。三浦(夫)が「ぜひ書いてほしい」と願った『母』も、その思いの中で生まれた。余命もあと僅かになってきたが、ものを書く限り、私はこの姿勢を変えないつもりである。

앞의 인용한 부분에서처럼 미우라의 인생에 있어 글쓰기는 곧 인간에

53) 奥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p176

대한 애정과 하느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우라는 글쓰기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즉 소설이란 작가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표현의 모든 수단으로서의 한 형태일 뿐이고 자신의 일상 생활과 떼레야 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사후(死後)에 발간된 에세이 『なくてはならぬもの』에서 미우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인용해 본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 있구나」라고 아침에 눈뜨면서 생각하고 「오늘 살아 있었네」라고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얼마나 자신들의 생활을 의식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⁵⁴⁾

〈罪を犯すのが人間です。犯さないでは生きていけないのが人間です。「きょうは私がいけるんだ」と朝、目が覚めて思い、「きょうはいかしていただいたんだ」と言って眠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どのくらい、自分たちの生活を意識して生きているかわからないのが現実です。〉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미우라 아야코의 과거체험과 그 이후의 기독교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해 알아보았고, 또한 작가의 대표작인 『빙점』 『속빙점』을 통해 인간의 에고이즘과 원죄의 의미, 하느님의 용서 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미우라에게 있어 과거의 체험은 미우라문학의 주요 모티브인 인간의 에고이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군국주의 시대의 교사로서의 생활과 패전 후의 가치관의 혼란과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그만 둔 뒤에 발병한 폐결핵과 척추카리에스로 인해 요양소 생활을 하던 중 초등학교 동창생인 마에카와 타다시를 만나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 기독교신앙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과 작품활동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음을 알

54) 三浦綾子, 『なくてはならぬもの』、光文社、2003, p173

수 있었다.

또한 「혼자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신앙을 전하고 싶다(一人でも多くの人に愛と信仰を伝えたい)」⁵⁵⁾에서도 미우라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私は自分のことを小説家だなんて思っていないの。ただ神とともにある生活を、神の愛を、文章を通じてたくさんの人に伝えたいだけ。だから、文学としていいとか悪いとかいくら言われても気にしないんです。…

(中略) …でも “書くこと” は神から与えられた私の使命。この命のある限り、一人でも多くの人の胸を打つ作品を書きたい。そんな気持ちが、私のエネルギーになっているんです。」 「나는 내 일을 소설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신과 함께 하는 생활을, 신의 사랑을 문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뿐이다. 그래서 문학으로서 어쩌구 저쩌구하는 말을 들어도 신경쓰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나의 활력소이다。」라며 자신에 대한 문학적인 평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소박하고 진실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마흔두살의 나이로 문단에 등단한 미우라는 이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죽기 직전까지 36편의 소설, 에세이등을 발표하였다. 그녀의 처녀작인 『빙점』은 천만엔 현상소설모집에 1등으로 당첨되어 과히 ‘빙점붐’으로까지 불리워졌고, 이러한 『빙점』의 인기는 원죄를 테마로 한 작품으로 미우라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에고이즘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의한 스토리전개 등은 또다른 ‘빙점’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중심의 인간이 아니고 자기중심이었던 인간은 결국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구제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요코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와 싸워 ‘자기의 핏속을 흐르고 있는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를 붙잡은 것이다.

이상으로 『빙점』과 『속빙점』, 이 두 작품을 통해 저자가 호소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인간의 깊숙한 현실을 해명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은 실로 인간 구원의 문학이며, 일본근대작

55) 앞과 같음

가들과는 또다른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을 제시한 보기 드문 작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参 考 文 献

<辞典類>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말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年

<単行本>

- 奥野裕行 『三浦綾子一人と文学』 勉誠出版 2005年
久保田暁一 『近代日本文学とキリスト者作家』 和泉書院 1989年
久保田暁一 『三浦綾子の世界』 和泉書院 1996年
佐古純一郎 『心を詩う作家 三浦綾子の世界』 主婦の友社 1978年
佐古純一郎 『三浦綾子のこころ』 朝文社 1989年
戸次優次 『「謎解き」聖書』 徳間書店 1998年
三浦綾子記念文学館 『「氷点」を旅する』 北海道新聞社 2004年
三浦綾子 『塩狩峠』 新潮文庫 1968年
三浦綾子 『積木の箱』 新潮文庫 1969年
三浦綾子 『道ありき（青春編）』 新潮文庫 1969年
三浦綾子 『光あるうちに』 新潮文庫 1971年
三浦綾子 『愛すること信ずること』 講談社 1972年
三浦綾子 『海嶺(上,中,下)』 角川文庫 1975年
三浦綾子 『母』 角川書店 1992年
三浦綾子 『銃口(상,하)』 小学館 1994年
三浦綾子 『氷点(上,下)』 朝日文庫 1999年
三浦綾子 『なくてならぬもの』 光文社 1999年
三浦綾子 『明日をうたう』 角川文庫 1999年
三浦綾子 『遺された言葉』 講談社 2000年
三浦綾子 『私にとって書くということ』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2002年
三浦綾子 『続氷点(上,下)』 角川文庫 2005年
三浦綾子記念文学館(編) 『「氷点」を旅する』 北海道新聞社 2004年

三浦三世 『三浦綾子創作秘話』主婦の友社 2001年
이윤정譯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클릭 2005年

<雜誌>

国文学 解釈と鑑賞 「三浦綾子『氷点』の陽子」1976年9月号
国文学 解釈と鑑賞 「特集三浦綾子の世界」至文堂 1998年11月号
『일본문학속의 기독교 No.1』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2003年
『일본문학속의 기독교 No.5』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편 2007年

<論文>

金潤鐸, 「三浦綾子の 작품에 나타난 원죄와 용서에 관한 고찰 -빙점과 속빙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1994年
金潤鐸, 「三浦綾子文学에 나타난 <에고이즘>에 관한 少考 -『빙점』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동덕여자대학교 1998年
朴勳舟, 「三浦綾子の信仰と文学」 대구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신지숙, 「미우라 아야코 『氷点』 『続氷点』의 요코의 자살기도에 관하여 -죄의식과 관련하여」 『일어일문학연구』 57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年2月